

“강인한 여성 연기... 단단해진 기분”

26일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 ‘해적: 도깨비깃발’ 개봉 단주 해랑 역 배우 한효주 열연... 첫 김술 액션 도전

“몇 년간 강인한 여성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단단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의 제가 2주 마음에 들어요. 하하.” 오는 26일 개봉하는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 ‘해적: 도깨비깃발’에서 단주 해랑 역을 맡은 배우 한효주는 14일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탁월한 무술 실력을 겸비한 해랑은 남자 선원들을 이끌고 보물을 찾아 나서는 인물이다. 퓨전 사극이기는 하지만 여말선초의 시대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카리스마 넘치는 여자 캐릭터다.

‘동이’, ‘광해, 왕이 된 남자’, ‘뷰티 인사이드’ 등에서 단아하고 청초한 역할을 소화한 그는 최근 몇 년 동안은 ‘해피니스’, ‘트레드스톤’을 통해 잇따라 걸크러시 매력

을 보여줬다. 한효주는 기존의 청순한 이미지를 탈피한 것이 “너무너무 좋다”며 웃었다.

“특히 ‘뷰티 인사이드’의 홍이수를 정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영화 팬이라고 하시면서 다가오면 팬스레 저도 모르게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고 또 부담도 있었어요. ‘해적’으로 기존 이미지를 깰 수 있게 돼서 좋네요.”

맡은 역이 해적이다 보니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중 촬영도 또 다른 어려움이었다. 한 번 촬영을 끝내고 나면 다음 날 아침까지 코와 귀에서 물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어떤 날은 영화 2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야외 촬영을 강행했고, 폭설이 내려 몇 시간 동안 대기하

다가 촬영이 취소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그는 “휴대전화로 기온을 검색했더니 눈을 의심할 만한 숫자가 나오더라”며 “머리에 물을 적시면 촬영하기도 전에 얼어서 살얼음이 떨어졌다”고 회상했다.

특히 함께 보물을 찾아 나서는 동료이자 의적단 두목 무치를 연기한 강하늘을 두고 “워낙 배려가 많은 친구”라며 “다쳐도 안 쓰러울 정도로 표현을 안 했다. 좋은 배우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어떤 날은 영화 2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야외 촬영을 강행했고, 폭설이 내려 몇 시간 동안 대기하

는 전작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1편인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은 전국에서 약 866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1편이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아서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인물과 스토리로 전개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로베이스에서 캐릭터를 구축해나갈 수 있었어요. 기대하고 계실분들에게 실망 안겨드리지 않을 영화, 캐릭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빅4 기획사’ 쏠림 현상 심화

BTS·NCT가 이끈 K팝 시장 비중 60% 넘겨... 폭풍성장

K팝 시장이 연간 음반 판매량 5000만장을 넘기며 대호황을 맞았지만 하이브(빅히트뮤직 한정)·SM·YG·JYP 등 이른바 ‘빅4’ 대형 기획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가온차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음반 판매량(상위 400개 기준)은 5708만9160장을 기록해 5년 전(1080만8921장)보다 428% 늘어 5.28배로 급증했다.

빅4 기획사의 판매량 비중은 58.8%에서 60.9%로 2.1%포인트 증가했다. K팝 음반시장이 5배 이상 확대된 가운데 대형 4개 기획사의 비중이 더욱 커진 것이다.

지난해 판매량을 기획사별로 살펴보면 NCT 127·NCT 드림·NCT가 큰 인기를 누린 SM이 1683만 1219장(2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활약한 하이브가 945만 2317장(16.6%)을 기록했다.

지난해 그룹 스트레이키즈로 창사 이래 첫 밀리언셀러를 배출한 JYP는 583만8140장(10.2%), 블랙핑크 리사 솔로 음반으로 성공을 거둔 YG는 261만3767장(4.6%)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가온차트 연간 음반 판매량 상위 20위권을 살펴보면 1위 방탄소년단 ‘버터’(299만9407장)를 비롯해 2위 NCT 127 ‘스티커’(242만7559장), 3위 NCT 드림 ‘맛’(209만7185장) 등 빅4가 16개나 차지해 휩쓸다시피 했다. 연합뉴스



연극 ‘라스트 세션’에 출연하는 배우 전박찬, 신구, 오영수, 이상윤(오른쪽부터). 연합뉴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좋은 출발

SBS 금토극 1위 탈환 시동

‘윈 더 우먼’을 끝으로 금토드라마 1위에서 물러났던 SBS가 그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까.

1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방송된 SBS TV 새 금토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첫 방송 시청률은 6.2%를 기록했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강력 사건과 그를 쫓는 경찰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프로파일링이 국내에서 하나의 수사기법으로 자리를 잡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장르극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감식계장 국영수(진선규)를 중심으로 과학전문수사반을 만들려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의 갈등이 그려지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갈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살인 사건을 쫓는 이야기 흐름 속에서 과학수사반으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며 극의 전개가 다소 늘어지는 느낌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궁금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범을 특정하기 쉽게 해 재미가 반감된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배우들의 연기는 합격점을 받았다.

‘열혈사제’ 이후 3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한 김남길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어떤 상황에서도 범인 검거를 최우선으로 하는 집요함, 다른 사람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는 섬세함을 안정적으로 표현해냈다. 진선규, 정만식 등 스크린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배우들의 등장에도 시청자를 사로잡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했다.

또 1998년이라는 시대 배경을 소품과 연출 등으로 잘 살려내면서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시그널’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무대 누비는 원로들 “조기 은퇴가 웬말”

신구·오영수 연극 무대 캐스팅

한국인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오영수(78)가 팔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연극 ‘라스트 세션’에 출연해 화제다.

오영수뿐만 아니라 다른 원로 배우들 역시 작업 환경과 수입이 좋은 드라마나 영화 대신 무대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신구(86)는 ‘라스트 세션’에서 프로이트 역으로 오영수와 함께 더블 캐스팅됐다.

90년간 주인공 두 명이 극을 이

끌어가기 때문에 대사량이 많고 대사 자체도 어려워 여간한 내공 없이는 소화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뮤지컬 분야에서는 공연계 ‘대모’라 불리는 박정자(80)가 활약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빌리 엘리어트’에서 빌리리노를 꿈꾸는 탄광촌 소년 빌리의 할머니를 연기하고 있다. 2017년 초연 때부터 꼭 이 역할을 맡아 사려 깊은 내면 연기를 보여주는 한편 강렬하면서도 따뜻한

넘버 ‘그랜마스 송’(Grandma’s Song) 등도 부른다. 연합뉴스



SBS TV 금토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5 고고 다이노 공룡탐험대 8:00 땀과 눈물 유치원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9:40 우리집 유치원 9:40 우리집 유치원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국가대표 와이프(재)	8:50 두 번째 남편(재) 9:30 930 MBC 뉴스	8:50 좋은 아침 9:55 SBS 10 뉴스	11:20 세게티마(재) 12:10 이주 각별한 기행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꽃 피면 달 생각하고(재)	9:45 기분 좋은 날 10:45 이 맛에 산다	10:30 삼남은 오늘 11:00 우리끼리 탐구생활	15:25 클래식 e 16:30 뽀빠리 유치원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2:15 꽃 피면 달 생각하고(재) 13:30 트러블노트 세상을 건다 스페셜	11:15 헬로키키즈 동물교실3 11:45 주라기캅스3(재)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7:00 EBS 뉴스 17:20 못 말리는 여인 18:00 생방송 위든지 해결단 19:50 다류영화 길 위의 인생
13:00 넷워킹 공명기획 문화스케치	13:50 K2이든 물어보세요 15:00 KBS 뉴스타임	12:00 12 MBC 뉴스 12:2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7:00 김기영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13:50 솔터	15:50 K2이든 물어보세요 15:10 인텔(재)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뽀빠리 좋아 15:55 기분 좋은 날(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최강 1시(재)	12:00 CBS맞춤뉴스 12:05 천영의 있는 숲길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15:30 TV 유치원 16: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6:55 5 MBC 뉴스 17:10 제20대 대통령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 다들아민주당 17:30 두 번째 남편(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내로세요	13:30 생명의現場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자녀종합뉴스
14:30 보물섬(재) 15:20 콘텐트 안테나(재) 16:00 시사연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6:50 노래가 좋아(재) 17:50 통합뉴스룸 ET	18:05 생방송 오늘 저녁 19:05 두 번째 남편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안싸우면 다행이야 22:40 피의 게임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방송의 달인 22:00 그 해 우리는 23: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8:25 한민승부 21:35 라디오강단 22:05 김은영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화고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국가대표 와이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2:55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사랑의 패배기 20:30 백종원 쿨리츠 21:30 꽃 피면 달 생각하고 22:40 개는 훌륭하다	18:05 생방송 오늘 저녁 19:05 두 번째 남편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안싸우면 다행이야 22:40 피의 게임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방송의 달인 22:00 그 해 우리는 23: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6:50 KCTV 제주어 뉴스 7:00 KCTV 뉴스 7:30 배워봐서 관광중국어 8:00 취미로 먹고 산다 9:00 KCTV 뉴스 10:20 KCTV 건강특목 12:30 KCTV 시청자대상 13:10 KCTV 다류스페셜 15:20 캣츠고 명명타임 17:00 KCTV 뉴스 21:00 KCTV 종합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17일

36년 일이 흥전되고 자녀와 관계된 일로 소식이 오거나 경사가 있다. 48년 직접투자로 사업장을 갖고자 한다. 주변에 자문을 구하라. 60년 차량으로 인해 고생을 하니 운전조심. 72년 계약금이 걸리고 변동은도 원만. 집안보다 외부활동이 더 중요하다. 84년 하는 일에 자신을 갖고 더욱 전문가로 발돋움 할 것.

37년 두통이나 신경성 질환이 온다. 재물과 관계된 일이 발생한다. 49년 주변 오는 것이 있으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 61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는 듯 하다 방해자가 생긴다. 73년 일이 앞에 산적해 있다면 미루지 말라. 다음에 더 큰 스트레스가 된다. 85년 직장이나 취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조기귀가.

38년 대인관계를 활용하면 결과와 기쁨이 있다. 50년 상대 비판은 나에게 치명타가 되지 비판하지 마라. 62년 마음과 몸이 무거워도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상책이다. 74년 나의 파산한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도 상대를 때리지 마라. 86년 구설이 따르니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39년 후회하지 않으려면 현실이 최선을 다하라. 51년 일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행동에 옮겨라. 63년 어느 분야든 전문가가 되도록 하라. 75년 자녀 또는 가정에서 고노.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올리거나 방문도 좋다. 87년 마음먹은 일은 꼭 하려고 한다. 적극적인 추진력과 끈기는 성공의 힘이 필요하다.

40년 신변에 위협이 따를 수 있다. 조기에 귀가하되 과음은 자중하는 것이 좋다. 52년 갈길이 먼데 조급함이 답답함으로 다가온다. 64년 동업 또는 창업에 여념이 없다.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라. 76년 마음에 격정이 먼저 앞선다. 생각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88년 정보는 미래의 나의 직업으로 연결된다.

41년 도움이 있거나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긴다. 53년 집안에 환경변화를 주거나 내일을 해 보려고 주변과 협의한다. 65년 부부간 논쟁이나 다툼이 있거나, 이성간 교제가 가까운 질수 있다. 77년 거리나 계약관계로 몸이 분주하고 소식이 찾아온다. 89년 부모님께 안부 전화나 찾아 보는 것이 마음 편하다.

42년 감사와 고마운 사람에게 표현을 하라. 54년 서서히 회복되니 마음을 즐겁게 비워라. 66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듯 하다 방해자가 생긴다. 78년 변동수가 생기고 구매 충동이 강해진다. 90년 진퇴양난의 입장이 되면 주변인의 지혜를 얻어 일을 해결하는게 좋다.

43년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저축 또는 미래 설계도 필요하고 있다. 55년 급히 서두를 일이 생긴다. 문서 변화, 소송건에서는 불리하다. 67년 자녀의 문제나 가정에서 불화가 조정되니 내일에 전념하라. 79년 취업이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매출이 증가. 91년 의욕이 강하고 갈 곳이 많다. 활동도 많다.

44년 배우자 건강이 불리하니 퇴근 시 보약이나 영양제라도 가져가면 좋다. 56년 집안에 우환이 생기니 부모님께 방문, 안부전화 필요. 68년 동업자가 동업 제의나 정중할 거절도 필요. 독립사업 길. 80년 머리손질이나 신발에 급전을 저축한다. 92년 매마나 문서상 이익이 오니 미루지 말 것.

45년 일이 증가되고 몸이 분주하다 음주는 절제 필요. 57년 주유일, 숙식일, 차량일, 관광일은 늦게까지 분주하다. 69년 직장인에게 실직 또는 재취업에 대한 일이 발생하니 신경을 써라. 81년 정보활동과 친구나 선배를 만나 미래를 토론했보는 것도 좋다. 93년 감성대립 또는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 언행 자제.

46년 분실 발생수가 있으니 지갑, 물건을 잘 챙길 것. 58년 돈지출이 생기고 금전문제로 의견 차 발생. 70년 애매한 행동이 구설이 되니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82년 반가운 소식이나 답답하면 일이 해소되니 인적자원을 활용하라. 94년 협조자나 동업자가 생기면 상의하여 공존공생하는 것이 유리하다.

47년 제조·건설분야, 관광사업 계약이 따른다. 59년 마음에 격정이 먼저 앞선다. 생각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71년 동업 또는 창업에 생각이 여념이 없다.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라. 83년 정보는 미래의 나의 직업으로 연결된다. 최선을 다하라. 95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망감이 크지만 마음만은 넓게 가져야.